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총괄_ 이성우 실장, 감수_ 김형태 감리위원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세계 물류동향 중 국제물류투자 협의체 회원사들(2011.01. 현재 122개 업체) 및 국내 물류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신규 해외사업발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들과 국토해양부 관계관 여러분께 매주 수요일 배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글로벌 물류 신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회원사들은 우리 센터로 연락¹⁾을 주시고, 다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 센터는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등의 역할을 지원²⁾할 수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 관련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매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 목 차 〉

□ 중국 후먼항(虎门港), 5만 톤급 컨테이너 선석 추가 운영 예정 -----	2
□ 베트남 LongAn성, Happy Land 개발 프로젝트 착공-----	3
□ Panalpina 사, 노르웨이 Grieg Logistics 인수-----	4
□ 미국 사우스 케롤라이나항만청, 사반나 신규터미널 개발 지원 중단-----	5

1) 연락처: 김찬호 책임연구원(02-2105-2908, chkim@kmi.re.kr), 송주미 연구원(02-2105-2872, jmsong@kmi.re.kr),
김성야 연구원(02-2105-2897, sungyakim@kmi.re.kr)

2) 해외투자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위클리 맨 뒷장의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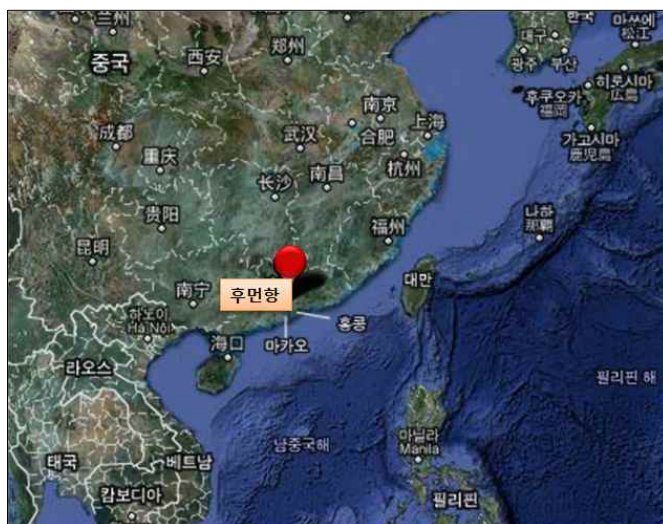


KMI 국제물류위클리

□ 중국 후먼항(虎门港), 5만 톤급 컨테이너 선석 추가 운영 예정

- 지난 2월 23일, 광둥성 둥관(东莞)시에서 개최된 '후먼항항만-물류발전세미나'에서 후먼항만 당국은 올해 5월부터 5만 톤급 컨테이너 선석 2개가 추가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힘
- 이는 후먼항 2단계 개발 사업으로, 안벽길이 678m, 수심 14.3m인 7~8호 선석임
 - 선석을 추가 개발하게 된 이유는 1단계 개발 사업인 5~6호 선석이 현재 둥관시 자체 화물조차 처리하기 힘들 정도로, 처리능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임
 - 1단계 사업인 5~6호 선석은 2008년에 운영된 것으로 알려짐
- 후먼항만 당국은 향후 항만-물류, 화학공업, 신에너지, 자동차, 장비제조, 조선 등 분야의 세계 유명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유치할 계획임
 - 이를 위해 네트워크화, 전문화, 전략화, 다원화된 투자유치 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 현재까지 총 41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총 투자 유치액은 343.5억 위안에 달함
 - PSA, SINOPEC 등 국내외 대규모 기업을 유치한데 이어, 올해 일본 MARUBENI, 싱가포르 WILMAR 등 세계 500대 기업 유치가 확정되었다고 밝힘
- 후먼항은 광둥성 둥관시의 유일한 항만이며, 총 계획면적은 32km²임
 - 2010년 기준으로, 항만 물동량 2,137만 톤을 처리하면서, 연평균 증가율 27%의 고성장을 기록하였음
 - 향후, 후먼항은 지속적인 항만-물류인프라 건설 및 지리적인 우세를 통해 광둥성의 중요 항만 및 주강델타 경제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후먼항 위치>



< 후먼항 조감도 >



자료: <http://www.chinaports.org>, 2011. 2. 24. / <http://www.humenport.gov.cn>, 2011. 2. 25 /

김성야 연구원(☎ 02-2105-2897, sungyakim@kmi.re.kr)



□ 베트남 LongAn성, Happy Land 개발 프로젝트 착공

- Vietnam Investment Consultants Network에 따르면, 지난 14일, LongAn성 BenLuc현에서 'Happy Land'라는 종합 단지 개발 착공식이 개최되었음
 - 이 행사에는 베트남 부총리를 비롯한 중앙 및 지방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1,000여개 합작 파트너와 국내외 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였음
- 이 단지의 총 개발 면적은 338ha이며, 총 투자액은 2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음
 - 관광, 상업, 서비스 등 종합 기능을 갖춘 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며, 단지내에 유치될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음
 - 한편,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은 베트남 Khang Thong그룹인 것으로 조사됨
 - 공사는 향후 39개월 안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에 정식 운영될 계획임
- 단지가 개발되면 총 10,0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며, 지방 및 주변 지역의 실업 문제가 대폭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한편, Happy Land 사업은 연간 1,4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됨

<롱안성 위치>



<Happy Land 조감도>



자료 : <http://www.Vnicon.com> 2011. 2. 20./

김성야 연구원(☎ 02-2105-2897, sungyakim@kmi.re.kr)



□ Panalpina 사, 노르웨이 Grieg Logistics 인수

-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Panalpina 사는 노르웨이 기반의 Grieg Logisitcs의 포워딩 부문을 인수하였음
 - 노르웨이 경쟁당국(Norwegian competition authorities)의 승인에 따라, 스위스 기업 Panalpina가 노르웨이 기업인 Grieg Logistics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음
 - 양측 모두 구매가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약 100여명에 달하는 Grieg Logisitcs 직원은 모두 Panalpina에 승계될 예정임
 - 또한 인수되는 기업의 명칭은 Panalpina Grieg로 될 예정이며, 이번 계약에서 제외되는 해운서비스(maritime serves) 및 항만운영(port operations) 부문은 Grieg Logistics AS의 이름으로 운영될 예정임
- Panalpina는 Grieg Logistics의 포워딩 부문인수로 연간 7,100만 달러의 매출액 증가가 기대된다고 하였으며, 에너지 분야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파악되고 있음
 - Panalpina의 CEO인 Monika Ribar는 “노르웨이의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의 Grieg의 높은 수준의 운영경험과 글로벌 석유 및 가스 분야에서 Panalpina의 리더십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며, “공동으로 글로벌 석유 및 가스 분야에서의 확장과 공동 물류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음
- ※ Grieg Logisitcs는 Grieg Group의 계열사이며, Grieg Group은 해운(shipping), 물류(logistics), 선박중개(ship broking), 어류양식(fish farming), 보험(insurance), 투자 및 재생 에너지(investment and renewable energy) 분야 등 다양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음
- ※ Panalpina는 전 세계 80여개 국, 500여개의 지점, 15,000여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물류 기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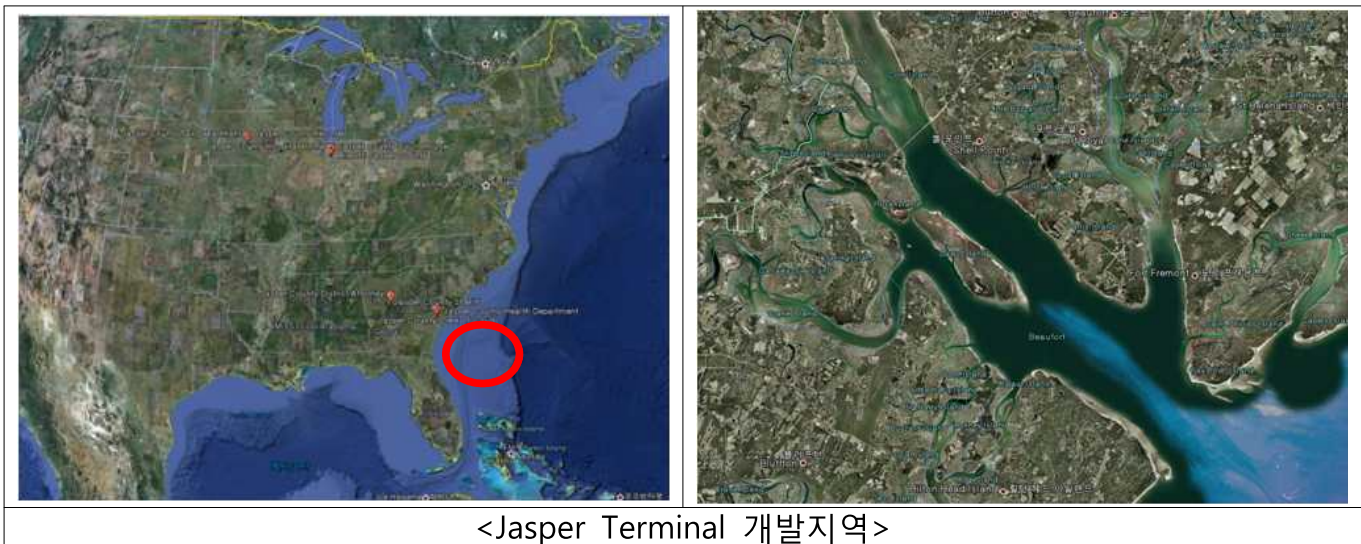
자료 : CI online, 2011.2.23. / www.panalpina.com 보도자료, 2011.2.22

송주미 책임연구원(☎ 02-2105-2872, jmsong@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 미국 사우스 케롤라이나항만청, 사반나 신규터미널 개발 지원 중단

- 최근 미국의 사우스 케롤라이나항만청(South Carolina State Ports Authority : SCSPA)은 그동안 조지아항만청(Georgia Ports Authority)과 공동으로 추진해온 사반나강(Savannah River)의 신규 터미널 개발 사업(Jasper Terminal)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
- 신규 터미널 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 사우스 케롤라이나주 주지사와 조지아주 주지사가 공동으로 제안한 것으로, 제스퍼 터미널은 조지아주 교통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건설되며, 운영은 사우스 케롤라이나주의 제스퍼카운티(Jasper County)가 담당하는 것으로 합의했었음
 - 아울러 비용도 양 주정부가 50:50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함
- 사우스 케롤라이나항만청이 제스퍼 터미널 개발 지원을 중단하게 된 이유는 사반나강에 위치하게 되는 제스퍼 터미널의 경제적 타당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임
 - 즉, 세계 상선대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포스트파나막스급 선박이 운항되고 있어 대수심 터미널의 건설이 요구되고 있으나, 신규 터미널은 사반나강에 위치하고 있어 이들 선박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준설비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임
- 이러한 사우스 케롤라이나항만청의 결정에 조지아항만청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두 주 경제의 발전과 미 남동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원 중단 조치의 재고를 요청



자료 : polb. 2011. 2. 16.

김찬호 책임연구원(☎ 02-2105-2908, chkim@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비용 지불),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